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5. 14. / (총 9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홍 승 령 장 태 영	전 화	044-202-3575 044-202-3576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시설팀	팀 장 담 당 자	오 진 희 정 윤 진	전 화	044-202-3519 044-202-35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 환자 발생 현황 및 조치 계획,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 환자 발생 현황 및 조치 계획,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부는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익명 검사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동선이 과도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니, 주저하지 말고 보건소나 1339에 연락하셔서 진단 검사를 받으시도록 당부하였다.
 - 특히 교육 시설, 종교 시설, 실내 체육 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은 감염 확산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꼭 신고하시고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적인 2차, 3차 확산을 막기 위해 환자와 접촉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격리할 수 있도록 방역 조치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1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상황 및 조치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각 시·도의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 환자 발생 현황과 조치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오늘(5.14) 0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 환자 수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 충북, 부산, 충남, 전북, 강원, 경남, 제주 등 전국에서 총 131명이다.
 - 어제 하루 약 1만5000여 건의 검사가 시행되었으며,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3만5000여 건의 검사가 시행되었다.
- 5월 8일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클럽 집단 발생과 관련하여 클럽 등 유흥시설 운영 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흥시설 집합금지, 감염검사나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추가로 발령하였다.

행정명령	시행 지방자치단체 (5.13 기준)	
유흥시설 집합금지	15개 시·도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부산, 충북, 충남,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북, 경남, 전북, 전남 * 미시행하는 강원과 제주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심야시간 집중 점검 실시 중
감염검사 시행	11개 시·도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충북, 충남, 대전, 울산, 세종, 경남, 전북
대인접촉 금지	9개 시·도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충북, 충남, 대전, 세종, 경북

-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찰 등과 합동하여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해왔으며,
 -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이후 5월 9일부터는 경찰과 합동점검반 (5.13 기준 전국 261개반 1,633명)을 구성해 심야 시간(22시~02시)에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 (5.9) 2,883개소, (5.10) 3,713개소, (5.11) 6,604개소, (5.12) 12,649개소, (5.13) 10,794개소
 - 어제(5.13) 심야 시간에 클럽, 감성주점 등 10,794개소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7,616개소는 영업 중지 중이었고, 영업 중인 3,178개소에 대해서는 소독 철저, 출입자 명부 부실 등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하였다.
- 심야 시간에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11개소* (누적)를 고발(~5.13)하였으며, 12개소(서울)를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 * 부산 7개소, 대전 2개소, 인천 1개소, 경기 1개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등 유흥시설을 방문한 분들은 신분 노출과 검사비용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보건소나 1339를 통하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에 적극 응해주시기를 당부하였으며,
- 이태원 클럽 관련 사례의 2차, 3차 감염 전파 규모를 줄이고 속도를 늦춰 방역 관리 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잘 통제하기 위해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2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가 중증도에 따라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환자는 감염병전담병원(최대 7,564병상 확보) 등에 입원하고,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하여 치료받도록 하고 있다.

* (운영 현황) 감염병전담병원 누적 74개소 7,564병상, 생활치료센터 누적 18개소

-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경증환자를 시설에 격리하여 치료하는 새로운 유형의 방역 체계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다.
- 생활치료센터는 대구·경북 환자를 위해 최초 설치되었고, 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시점에 최대 16개까지 운영됐으며, 이후에 해외 입국 환자를 위한 경기국제1·2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해왔다.
 - 대구·경북 지역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16개소는 4월 30일자로 모두 운영을 종료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
 - 16개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에서 총 3,047명의 환자가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는 동안 의료진 720명을 포함해 총 1,419명이 근무하였으며, 시설 내 감염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 최근 경기국제2(안산) 생활치료센터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운영을 종료(5.15)하고 경기국제1(안성) 생활치료센터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 경기국제2(안산) 생활치료센터에서는 3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총 58명의 환자가 완치되어 퇴소하였으며,

- 현재 센터 입소자 42명은 주소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생활치료 센터 또는 병원으로 오늘 전원을 완료하며, 이 중 주소지로 이송이 어려운 제주 지역 환자 2명은 경기국제1(안성) 센터로 이송하였다.
 - 또한 5월 말에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었던 경기국제1(안성) 생활 치료센터는 6월 말까지로 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해외 입국 외국인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까지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교민 환자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국제2(안산)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협조해 주신 안산시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의료진에게 감사드리며, 환자 이송에 도움을 준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에도 감사의 뜻을 밝혔다.
 - 또한 지금까지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기꺼이 시설 사용에 협조해 준 기업(삼성, 현대자동차, LG), 종교계(카톨릭 대구대교구), 금융기관(기업은행, 대구은행, 농협), 학교(경북대, 서울대),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시 급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 운영 시설과 협력병원을 사전에 지정하여 즉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 * 지자체별 생활치료센터 지정 및 14개 대학병원에서 협력병원으로 참여 신청

- 아울러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입지 기준, 시설·인력기준, 환자관리 방법 등을 표준화한 모형을 마련하고 보급하여, 향후 감염병 발생 시 지자체별로 모형에 따라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생활치료센터 표준 모형을 국제 기준에 맞게 표준화하여 해외에 널리 알리는 등 생활치료센터가 'K-방역모델'의 핵심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9.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붙임1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붙임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